

담양군 농업회의소, 대의원 총회 개최



담양군은 지난 3월 27일 담빛농업관 대강당에서 이문태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 농업회의소 출범 후 첫 전체 대의원 총회를 진행했다.

농업회의소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이날 대의원 총회는 CI선포식, 이문태 회장 인사, 이계호 국회의원, 최형식 군수, 김정오 군의장의 격려사 등의 개회식을 거쳐 농업회의소의 발

CI선포식 등 거쳐 발전과제 주제 교육 등 이뤄져 “실제 농업현장 제도·사업 등 정책에 반영 노력”

전과제를 주제로 한 대의원 교육, 총회 순으로 이뤄졌다.

담양군 농업회의소는 이날 오후 사업으로 △농업회의소의 기반 구축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사회 및 분과 위원회 정례회 △회원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소식지 발행 등 농업회의소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제시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국민농업포럼 채선욱 사무국장이 농업회의소 현황과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담양군 농업회의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대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문태 회장은 “농업회의소가 지난해 창립 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실제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와 사업들이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멜론 재배기술 교육 실시

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 사업자 대상

곡성군이 지난 3월 30일 곡성군 민회관에서 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멜론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 사업이란 멜론농가에 육묘 재배비 또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산할 멜론 전량을 공동 선별, 공동 정산을 시행하는 지역 내 유통법인 또는 농협에 납품하기로 연초에 약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교육에는 전 농협경제지주 컨설팅지원국장을 지낸 나종대 박사가 강사로 나섰다. 나 박사는 멜론 1차 비대기 관리 요령 및 토양 관

리 핵심기술 등 고품질 멜론 재배 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해 멜론재배에 어려움을 겪던 농가들은 상세한 강의에 크게 호응했다.

교육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조원자 소장은 사업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 소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농협 및 법인과 협조하고 있다. 사업지원 뿐 아니라 농가의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군, 상반기 인재육성기금 심의회 개최...장학생 122명 선발 1억원 지원

구례군은 지난 3월 29일 구례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 심의회를 개최하여 초·중·고·대학생 122명을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1억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초등학생은 예·체능·다자녀 장학생 20명, 중·고등학생은 성적우수·저소득·다자녀 장학생 각 30명씩, 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으로 45명을 선발하였다. 대학생은 성적우수 20명, 다자녀 6명, 다문화 1명, 총 27명을 배정표에 의해 선발

했다. 군은 이번 심의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재육성기금심의회에서는 장학금 지원 이외에도 2020년 기금 운용 성과에 관한 논의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2021년 기금 사업 계획 변경안을 가결하여 농산어촌 유학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지식천 폐기물 수거에 구슬땀

2월부터 미수거물처리 ... 남평·산포 민간단체 정화작업 동참

나주시가 지난 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영산강 수계 하천변의 수해 폐기물 완전 수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월부터 남평읍, 산포면을 관통하는 지식천 하천변에 전도된 폐목 등 일부 미 수거된 수해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고 3월30일 밝혔다.

쾌적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 남평읍 자율방범대, 산포면 이장단·주민자치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단체회원 약 30여명도 자발적으로 폐기물 수거 및 선별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지식천 폐기물 수거 현장과 임시 적환장 2개소를 각각 방문, 점검하고 봉사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 시장은 “하천에 장시간 방치된 수해 폐기물은 수질 오염과 더불어 여름철 전염병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민 건강을 위해 꼼꼼히 처리해야한다”며 “소중한 생태자원인 영산강 수질 보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주고 있는 봉사자,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다시면을 비롯한 9개 읍·면·동에서 발생했던 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등 수해 폐기물은 약 1398톤에 달한다.

시는 현재 각 읍·면·동 임시 적환장에 보관중인 폐기물을 올 상반기 안으로 소각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화순 청년, 전남도 4-H 공모전서 대상·최우수상·우수상 3명 수상

김철·대상·김민영·최우수상·김성호·우수상

화순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1년도 청년 4-H 과제 공모전에서 화순청년농업인 3명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년 4-H 과제 공모전은 기술 농업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과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전남농업기술원이 주관한 공모전에는 시·군 4-H회원 41명이 참가해 대상 5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5명, 장려상 5명 등 20명이 선정됐다.

화순 지역에서는 3명이 참여해 도암면 김철 회원이 대상, 한천면 김민영 회원이 최우수상, 능주면 김성호 회원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사업비 5000만 원(대상), 3500만 원(최우수상), 3000만 원(장려상)을 부상으로 받았다. 김철 회원은 ‘한 코에 반한 농산물 팻푸드’를, 김민영 회원

은 ‘바쁜 현대인에 맞춘 제품 리뉴얼과 고객 맞춤 정기 배송 서비스’를, 김성호 회원은 ‘식용우렁이 사육 구축(트레이 용기를 이용한 먹이 편한 우렁이살 제작)’을 주제로 참여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 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4-H회원 4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법 교육을 추진하는 등 공모전을 지원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순군 4-H연합회 회원들이 전라남도 4-H과제 공모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에 선정되어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과 교육으로 창의적인 과제활동을 지원해 화순군 청년농업인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장성군 “만65세 이상 결핵 무료검진 받으세요”

군민·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장성군이 결핵 퇴치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장성군보건소는 결핵 발생률이 높은 만 65세 이상 군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무료 결핵 검진을 추진해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건소는 지난 3월 23일, 황룡면 월평리 교동경로당에서 대한결핵협회 협조하에 37명의 주민을 무료검진한 것을 시작으로 장성읍, 진원면, 황룡면 등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군민

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차량으로 각 마을 경로당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며, 65세 이상이 아니라도 평소 기침이나 가래 등 결핵 유사 증상이 있는 주민도 검진을 받아볼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2주 이상의 기침·가래·발열·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찾아가 결핵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